

농업의 변화와 혁신
농협이 이끈다

〈7〉고품질 특화 브랜드 육성

‘농민이 잘 되어야 농협도 잘된다.’ 농협 전남본부가 ‘1농협 1대표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다. 농협 전남본부는 지역 농·축협의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사업을 지원하면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고품질 농작물을 통해 농민들의 농업 소득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광주일보의 농업 현장을 찾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농협의 지원 활동, 희망찬 전남 농업·농촌의 미래를 모색한다.

이상기후 대응 전환...신소득 작목 쑥쑥

곡성 옥과농협...‘옥과향’ 재배

작목 전환 지원...특화단지 조성

12개 농가 15개 하우스 5년 재배

천혜향·레드향 25 t 첫 출하 완판

이상기후와 저출생 고령화는 농촌의 변화를 불러온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연평균 기온이 1도 올라가면서 농산물의 재배 적지(適地)가 바뀌고 일손 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없이는 농사 짓기가 힘들어진 현실은 농민들에게 ‘올해는 어떡하나’라는 불안감을 키운다. 그렇다고 배운 도둑질이 농사밖에 없는데, 수십 년 터전을 옮길 수도, 논·밭을 포기할 수도 없다.

곡성 옥과농협이 신소득 작목으로 만감류를 선정하고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농민들의 작목 전환을 지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옥과농협은 사과와 벼농사 대신, 천혜향·레드향, 카라향 등 만감류 농사로 전환을 유도하면서 지역의 활로를 찾는 데 힘을 실어줬다.

옥과농협 이경주 팀장은 “따뜻한 곡성의 기후로 겨울 재배가 가능하고 노지보다 수월한 하우스 재배 방식, 사과보다 일손이 적게 들고 벼농사보다 수익이 좋은 점 등을 감안해 만감류 재배의 가능성을 판단했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한 해 작황에 생계가 달린다. 갈수록 줄어드는 수확량에도 염두를 뒀내고 죽으나 사나 꼭 벌되고 살아가는 이유다.

옥과농협은 이런 점을 감안, 구정훈 조합장을 중심으로 설득에 나섰다. 이들 농민들을 선진지로 데려가 직접 보여주고 전문 마이스터를 데려와 컨설팅부터 재배 기술 등 궁금한 내용을 알려주면서 힘든 작목 전환의 첫 발을 떼도록 지원했다. 처음 나무를 심어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는 데 걸리는 시간은 통상 4년. 시설하우스·보온커튼·묘목대·관수시설 등 설비를 갖추는데도

비용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옥과농협은 이 때 ‘6년 무이자 대출’을 내걸었다.

구정훈 옥과농협 조합장은 “군이 보조금을 주고 농협이 지원해도 전체 설치 비용의 30%는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 금전적 압박이 클 수밖에 없어 고민 끝에 결정했다”며 무이자 대출 배경을 설명했다.

곡성군을 찾아가 예산 지원도 이끌어냈다. 과일 생산으로 가격이 낮아진 사인머스켓 사례를 잊지 않고 한 해 3개 농가(0.7ha)로 지원을 제한하면서 농가 경쟁력을 확보했다.

5년 전 이렇게 조성된 ‘옥과농협 만감류 특화단지’는 ‘옥과향’이라는 이름의 브랜드로 지역의 새로운 소득 작물을 키워내는 효자 단지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까지 12개 농가가 15개 하우스(4.2ha)에서 천혜향·레드향·카라향·한라봉 등 만감류 재배에 나서고 있다. 5개 농가는 5년을 키워 낸 천혜향·레드향 25 t을 올해 1월 한 달 간 첫 출하해 완판을 했다. 올 8월부터는 수확 농가가 더 늘어나는 만큼 만감류 전용선별기도 갖춰 수확기 신속히 대응하는 전략도 마련했다. 특화단지가 모양을 갖춰가고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수익성 등을 확보하면서 ‘옥과향’ 브랜드 경쟁력도 갖췄다는 게 옥과농협 분석이다. 청년 농업인들이 귀농해 만감류 농사에 나서는 등 인구 유입 기반을 갖추는 데도 역할을 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할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천혜향 농장을 찾은 구정훈 옥과농협 조합장. <옥과농협 제공>

다만, 한 해 ‘귀한 과일’이라는 인식이 컸던 사인머스켓 재배 면적이 급격히 늘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졌던 점을 들어 무분별하게 재배 농가를 늘리는 방안은 경계하고 있다.

구정훈 옥과농협 조합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만감류 생산이 시작되면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소득작물을 추가로 발굴해 농가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사과·포도 대신 레몬...효자 작목 부상

장성 삼서농협...‘장성레몬톡톡’ 재배

국내 내륙 최초 레몬 재배단지

올 수확량 100t...곳곳 납품 계약

생산·가공·체험 연계 산업화 모색

3년 전 8개 농가가 시설하우스(2만 4156㎡)를 갖추고 레몬 나무를 심더니 이듬해에도 3개 농가가 추가로 레몬 재배 하우스(9278㎡)를 조성했다. 이들 중 청년농이 45%를 차지한다. 레몬정원을 운영하는 정화원 농장주 등 도시에서 귀농해 레몬 재배에 나선 농가도 생겨나고 있다. 장성 삼서농협이 주도하고 있는 ‘장성 삼서 아열대 레몬단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장성 삼서면은 레몬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인 지역. 국내 내륙 최초로 조성된 레몬 재배단지이면서 최대 규모 단지이기도 하다.

레몬은 추위에 취약한 대표적 아열대 작물이지만 기후 온난화로 레몬 재배가 가능해졌다는 게 삼서농협 설명이다.

장성은 사과로 유명하다. 재배면적(74ha)은 전남 생산량의 67%를 차지한다. 하지만 지난해 이상 기온으로 수분을 하지 못하는가 하면, 기온이 오르면서 소득도 나빠졌다. 사과는 기온 차가 커야 당도가 높아져 맛있다.

포도 농가도 마찬가지다. 장성 포도 재배면적(47ha)은 전남 생산량의 56%에 달했다. 이들 작물에서 거둬들인 소득은 3년 전보다 53%(70억 2800만원)나 소득이 감소했다는 게 삼서농협 분석이다.

아열대 작물인 레몬에 눈을 돌린 이유다. 삼서농협 이태영 조합장은 “국내 레몬 소비량의 90%가 수입산이고 노동력이 사과의 10분의 1도 안 돼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고 값싼 시설하우스로 체험 관광의 경쟁력도 충분하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건강 식품으로 떠오르면서 젊은층 사이에 관심이 높은 트렌드에도 주목했다.

첫 발은 성공적으로 내딛었다. 3년 전 심은 레몬 나무에서 열매가 맺힌 지난해 첫 수확을 했다. 수확량 20 t은 완판했다. 올해는 수확량이 100 t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포장디자인·선호도조사 등을 거쳐 ‘장성레몬톡톡’이라는 브랜드도 만들었고 농협하나로마트, 백화점, 온라인마켓 등 과도 납품 계약을 맺었다.

2개 농가는 올해부터 친환경 재배도 시작했다. 고체 완 삼서농협 상무는 “친환경 재배는 방부 처리를 해 들어오는 수입 레몬에 비해 경쟁력이 월등하다”고 했다.

삼서농협은 소비자 신뢰성을 높이고 산업화 기반을 갖추기 위해 햇썬(HACCP) 시설과 가공·판매 가능한 유통시설 조성에도 나섰다.

삼서농협은 지난해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전남도 예산 지원을 받아 올해부터 컨설팅을 거쳐 가공시설 등을 본격 추진한다. “가공시설을 갖추게 되면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해지고 계절성을 극복할 수 있어 안정적 농가 소득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삼서농협 정광석 전무 애기다.

다만, 전남도가 지원 항목이 다르며 난색을 표시해 애초 구상했던 체험시설까지 확대하는 구상은 잠시 미뤄둔 상태다.

삼서농협은 오는 2027년까지 레몬 재배면적을 5ha로 키워 국내 내륙 최대 단지로 규모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건강농산물이라는



올해 수확을 앞둔 레몬 재배 농장을 찾은 이태영 삼서농협 조합장.

특화된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레몬차, 향수, 레몬청, 비누, 레몬촉제 등 레몬을 활용한 소비자를 발굴하고 체험 공간으로도 활용하는 한편, 수출 등 판로 확보에도 적극 나서 레몬 산업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태영 삼서농협 조합장은 “삼서 레몬단지를 생산·가공·체험 및 축제로 이어지는 산업화가 가능한 국내 내륙 최대 규모 레몬 메카로 육성해 안정적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글·사진=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성낙양(왼쪽) HS효성첨단소재 대표와 타툰 다가 타타스틸 CEO가 친환경 스틸 원재료 장기구매를 위한 MOU를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HS효성첨단소재 제공>

HS효성첨단소재, 태국 기업과 친환경 원료 계약

친환경 타이어 스틸코드에 사용

HS효성첨단소재는 “태국 타타스틸(TATA STEEL)과 친환경 스틸(철강) 원재료 장기구매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HS효성첨단소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타이어 스틸코드에 사용되는 친환경 스틸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타이어 스틸코드는 타이어의 내구성과 형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보강재다.

인도 대표 기업인 타타 그룹 산하 태국 타타스틸은 전기로 방식을 사용해 고품질 스틸 원재료를 생산하고 있다. 타타스틸이 생산하는 제품은 고철 스크랩을 재활용하며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 기존 고로 방식보다 탄소 배출량이 약 60% 낮다.

HS효성첨단소재는 해당 제품을 사용해 탄소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타이어 스틸코드를 생산·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스틸코드 제품은 기존 고로 제품보다 이익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수익 창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낙양 HS효성첨단소재 대표이사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안정적으로 친환경 원재료를 확보했다”며 “글로벌 타이어 고객들의 친환경 제품 개발 니즈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친환경 타이어 스틸코드 수요는 전기자동차 타이어 시장 확대와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서 지속가능 원재료에 대한 요구 확대 등으로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HS효성첨단소재는 친환경 타이어 스틸코드 제품의 판매 비중을 올해 5%에서 2027년 15% 수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김해나 기자 khn@

4월 광주·전남 건설투자 소폭 개선

소비심리 위축·소비 침체는 지속

지난 4월 광주·전남지역의 건설투자는 전년보다 소폭 개선됐지만, 지역민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소비는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최근 광주·전남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광주시 건축착공면적은 7만 3000㎡로 전년(7만㎡) 대비 4.6% 증가했고, 건축허가면적은 103.4% 늘었다. 건축착공면적은 공동주택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기타(+155.7%)과 주거용(+438.7%)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남 건축착공면적 역시 기타(+8.1%)와 주거용(+13.9%)을 중심으로 22만 7000㎡에서 24만 3000㎡로 7.1% 증가했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건설·부동산 부진으로 얼어붙었던 경기가 점차 회복세에 접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지역민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지역 소비 침체는 지속됐다.

광주·전남 4월 중 소비자심리지수 85.9로 전국(93.8)에 크게 못미쳤고, 5월(94.7) 역시 장기평균치 기준점인 100에 도달하지 못했다.

지역 대형소매점을 통한 소비도 부진했다.

광주시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4월 기준 89.4로 전년 동월(98.0)보다 8.8% 감소했다. 업체별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업계에서 소비가 각각 8.1%, 9.8% 줄었다. 전남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도 74.6으로 전년 동월(82.6)에 견줘 9.7% 감소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호남지역 5만개 사업체 ‘경제통계 통합조사’

호남지방통계청 7월 21일까지

호남지방통계청은 오는 7월 21일까지 광주·전남을 비롯한 호남지역 소재 5만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한다.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우리나라 산업 및 경제의 구조변화, 경영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조사로, 4개 분야의 경제통계조사를 동시 진행한다.

조사 분야로는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기업활동조사가 있다.

이번 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체는 조사원

직접 방문, 대면 조사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메일, 팩스, 전화 등 비대면 조사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잠정 결과가 공표되며, 우리나라 각 산업 분야의 정책 수립·평가, 기업과 국민의 의사결정 및 학계 연구활동의 기초통계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구현 호남지방통계청장은 “올해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조사결과가 새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및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한전 광주·전남 신재생에너지 관제 시스템 구축

한국전력공사(한전)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관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관제 시스템은 급증하는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추진됐다.

한전은 이날 광주전남본부 전력관리처에서 광주·전남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송전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시·운영하는 ‘지역 신재생 발전 관제 시스템(LRMS)’ 준공식을 개최했다. 현재 전국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은 38.6GW(기가와트) 규모로 전력계통에 연계돼 있고, 이 중 7.1GW가량이 광주·전남지역에 집중 분포된 상황이다.

광주·전남은 전국 신재생에너지 전력계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한전은 지역 신재생 발전 관제시스템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출력 예측 및 수용 한계량 산정, 신재생 출력 제어 등을

원활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전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가 연계된 전력계통을 통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전력계통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972.19 (+21.89)
↑ 코스닥	779.73 (+4.08)
↑ 금리(국고채 39년)	2.472 (+0.024)
↑ 환율(US D)	1375.50 (+12.80) (오후 4시 54분 기준)